

# — 国内潤滑油産業의 實態分析과 長短期 政策方向 —

高麗大學校附設 經濟研究所

本論文은 双竜精油(株)와 協會가 共同으로 高麗大學校附設 經濟研究所에 用役依賴한 研究課題에 對한 論文으로 潤滑油産業에 對한 最初의 論文이기 때문에 業界에 從事하는 모든분들의 關心이 클것으로 믿어 두章을 뽑아 協會誌에 掲載합니다. (編輯者註)

## 第5章 潤滑油産業의 合理的 發展方向

지금까지 潤滑油産業을 分析해 본 結果 우리나라 潤滑油産業은 政府의 過剩保護下에서도 稼動率과 市場의 不安定性 및 技術向上과 品質管理의 未振性 等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潤滑基油産業의 낮은 國際競爭力과 低稼動率은 問題의 深刻性을 바로 露出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現狀은 비단 潤滑油産業에만 국한된 問題가 아니다. 많은 他産業에서도 이와 類似한 問題가 흔히 있었다. 우리나라가 1970年代 中半에 經濟發展戰略을 樹立함에 있어 1985년까지 500億弗 輸出達成에 目標을 定하고 重化學工業의 急伸張에 焦點을 맞추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計劃의 推進으로 需要와 供給의 罅이 深化되어 많은 産業의 稼動率이 極히 낮은 狀態에서 國際競爭力이 弱화되었던 것인데 特히 重化學工業에서 두드러진 심각한 現狀이었다. 1970年代에 豫想되던 需要에 供給을 맞추는 計劃이 樹立되어 推進되었으나 1980年代에 들어와 實際需要가 豫測에서 거의 完全히 빚나가게 되면서 計劃·推進된 供給이 過剩되는 結果가 招來되었다. 潤滑基油産業의 現狀況도 그 根源을 따지고 보면 1970年代의 우리나라 經濟發展計劃의 蹉跌에서 到來된 産物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本章에서는 위와 같은 潤滑油産業이 正常化되어 合理的으로 發展되어야 하는 方向을 提示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産業이 合理的으로 發展되기 위해서는 그 産業의 供給面인 生産活動이 正常化되어 合理的으로 發展하고 그 製品의 市場이 正常化되면서 安定을 構築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潤滑油産業이 合理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諸方向으로서 需給調整, 價格調整, 輸入調整 等を 本章의 主內容으로 한다.

## 第1節 需給調整

潤滑油는 器機類의 圓滑한 作動과 이의 壽命維持에 필요불가결한 極히 重要한 石油類製品이다. 이의 適切한 利用은 資本을 效率的으로 利用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의 代替品은 아직 없다. 潤滑油 使用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는 것은 곧 資本의 浪費를 招來 하게 되므로 適正量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으면 使用量을 增減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潤滑油에 對한 需要를 적절한 技術革新이 없이 인위적으로 調節을 할 수 없는 것이다. 潤滑油 需要는 器機類의 物量과 使用量에 따라(自然的인 使用量에 依해) 자동적으로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 需要를 調節할 性質의 것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製造業 成長率과 潤滑油 消費의 增加率과는 거의 같은 比率(彈性值가 거의 1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潤滑油 需要가 거의 年平均 10%씩 增加할 것이 예상된다. 需要는 調節의 對象이 되지 않고 自然增加趨勢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편 潤滑油 使用을 늘림에 따라 器機類의 壽命은 약간 延長될 수도 있겠으나 資源集約的인 石油類製品이기 때문에 資源節約的인 側面에서 適正量 以上の 消費는 바람직 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器機의 원활한 作動과 壽命에 潤滑油가 중요하기 때문에 潤滑油를 使用함에 있어서 質的인 管理와 該當器機에 適合한 潤滑油 使用 與否는 극히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無秩序하게 氾濫하고 있는 廢油再生 粗雜品은 철저한 品質管理를 통해 엄격한 規制를 받아야 할 것이다. 再生粗雜 潤滑油의 無分別한 流通과 使用은 貴重한 資本을 浪費시키고 流通去來秩序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國民保健에 至大한 惡影響을 미침과 동시에 正常的인 需給에도 극히 좋지 못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철저한 規制와 團束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措置를 強化하고 適正品目을 適正量 使用하면 우리나라에서는 工業發展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潤滑油 需要도 比例的으로 급속히 增加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潤滑油 需要가 4大 潤滑油配合業體의 生産能力(設備)과 潤滑基油의 生産能力을 超過할 수 있는 時期는 1984 年末 내지 1985年初가 될 수 있고 輸入 30%를 許容하는 條件에서는 1987년에는 需要가 上記 供給 能力을 超過할 수 있게될 것이다. 더우기 價格에 對한 需要彈性值(0.25)가 낮으므로 需要不足에 의한 問題點은 1988年 이전에 解決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世界 潤滑油市場에 對한 展望에 의하면 1986年頃에 이미 需給均衡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供給不足現狀이 來到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展望은 國際潤滑油價格의 上昇을 豫告하는 하나의 徵兆로도 볼 수가 있다. 결국 需要는 充分히 發生된다고 看做하고 品質管理에 力點을 두어야 하는 것이 當面課題이다.

潤滑油의 供給은 물론 需要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需要를 豫側하고 이에 맞춰 供給을 調節하면서 供給計劃을 樹立하는것은 企業스스로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課題이다. 다만 現在로서 潤滑油産業의 問題點이 過剩供給能力(稼動率低下)이기 때문에 生産實績의 급속한 增加가 특별히 要求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需要의 急速한 伸張이 豫想되므로 需要增加에 따른 供給增加도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輸入問題를 別個事項으로 보면 過剩供給問題도 멀지않은 장래에 自然的으로 解決될 수 있는 것이다.

國內供給能力과 國內需要로만 需給을 展望해 볼때 대단히 鼓舞的이고 希望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需給調節問題는 自然的인 趨勢에 依하여 저절로 解決될 수 있으므로 輸入問題를 떠나서는 政策的 效果로 左之右之해야 할 성질의 課題가 아니다. 다만 需給이 安定 基盤을 構築하여 時間的으로 過不足現狀이 發生하지 않도록 去來上에서의 秩序가 確立되어야 하는데 이는 供給者와 消費者가 協力하여 安定化에 努力하여야 하고 政府는 不正去來를 公正去來法으로 嚴하게 다스릴 責任이 있다. 이런 點에서 尙간에 떠도는 雙龍의 潤滑油配合業 進出問題는 申중히 다루어져야 할 課題일 것이다. 既存의 秩序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企業行爲는 制裁의 對象이 되어 마땅하다고 하겠다.

## 第2節 價格調整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 商品價格이 自由로운 善意的 競爭에 依해 自律的으로 決定되고 需要-供給의 變動에 따라 變動되는 것이 原則이고 가장 바람직한 現狀이다. 이렇게 決定된 價格이 安定性과 公正性 그리고 客觀性을 維持할 수 있는 것이다. 意圖的으로나 計劃的으로 供給과 需要를 인위적으로 調整하여 價格을 操作하는 것은 市場을 不安하게 만들고 去來를 不公正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潤滑油市場에 있어서도 價格決定은 自由競爭에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潤滑油製品市場에서는 消費者가 大部分 一般 個個人이거나 消費量이 市場에서 壓到的인 比重을 차지하지 않는 消費者이고 供給者도 比較의 多數가 競爭을 하고 있어 價格의 自律性이 유지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潤滑基油 市場에서는 使用者가 比較적 多數인데 反해 供給者는 하나 또는 둘에 不過하며 自由競爭原理에 依해 價格이 自律的으로 決定되기에는 與件成熟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狀態이다. 이러한 點에서 潤滑基油에 對해 國內需要의 70%를 輸入制限함과 同時에 關稅率을 30%賦課하는 二重保護는 自由競爭原理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潤滑基油市場을 不安定狀態로 維持시키는 處事라 할 수 있다. 潤滑油市場의 安定化는 根本的으로 國內供給과 輸入이 適切한 競爭을 維持하며 獨占의 橫暴도 막고 需給의 圓滑化를 기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潤滑基油市場에서는 價格調節을 위해 輸入을 통한 需給調節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現在로서는 供給過剩現狀이 維持되고 있고 輸入이 一定한 限度內에서 許容되고 있어 供給獨占에 依한 價格操作橫暴가 問題視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需要가 增加하며 供給過剩이 消滅될 때에는 潤滑基油市場에 對한 適正價格維持를 위한 價格調整問題가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B-C油의 消費가 有煙炭, LPG, LNG 등 代替品の 活用으로 減少되는 傾向에 있어 潤滑基油의 主原料인 B-C油의 價格이 下落할 展望도 있다. 需要增加에 따른 供給過剩解消 및 供給不足과 B-C油의 價格引下 등으로 潤滑基油價格이 適正水準을 넘어설 可能性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對해서는 生産費에 基準을 두고 販賣價格을 決定하는 Mark-up pricing (加算法價格決定) 制度로 價格調整을 合理的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利潤을 保障하거나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獨占橫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潤滑油價格을 調整하는데 있어서 담당해야 할 政府의 役割로는 公正去來法을 嚴格히 適用하여

價格操作이나 價格歪曲이 發生하지 않도록 하고 國內價格을 輸入價格과 競爭하도록 關稅率을 伸縮性있게 調節하는 것이다. 長期的으로는 國內價格이 輸入價格과 自由競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第3節 輸入調整

輸入에 對해 많은 사람들은 條件反射的으로 拒否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輸入은 必要한 것일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 肯定的인 效果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輸入은 消費者를 有益하게 한다.

輸入價格이 낮을 경우(價格이 낮아야 輸入되는 것이 原則이고 現實이다) 消費者는 그만큼 惠澤을 받게 된다. 消費者는 보다 큰 選擇의 餘裕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輸入은 消費者의 立場에서 보면 必要하고 有益한 것이다. 輸入製品이 國內製品과 競爭을 하게되면 國內製品의 品質이 改善되고 價格이 낮아진다. 따라서 輸入은 技術을 向上시키고 經營을 改善시켜 資源配分의 效率을 높이고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는데 크게 功獻하는 效果를 가져온다. 大局的인 見地에서 客觀的으로 判斷해 볼때 우리는 輸出을 하면서 輸入은 안하겠다는 國家政策은 論理에 맞지 않는 非合理的인 方向이기도 하다.

輸入을 해야 하는 것은 當然之事이고 다만 輸入을 하기는 하되 輸入을 關稅 또 其他方法으로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調整하는 것이 重要的 課題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政府가 取하고 있는 輸入自由化 方向은 合理的이고 옳은 것이다. 政府는 輸入自由化를 推進하고 이에 對處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企業이 할 일이다. 한편, 關稅도 高率에서 低率로 調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消費者의 選擇과 利用을 높이고 동시에 企業의 競爭力을 높여 우리企業의 國際競爭力이 높아진다. 企業에 對한 保護가 減少될수록 企業自體도 健全해지고 國家에도 利益이 增大된다. 消費者의 利益을 높이고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는 輸入自由化와 關稅率引下 政策에 反對할 合理的인 根據나 論理는 成立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政府가 指向하고 있는 輸入政策方向을 보면 첫째, 輸入自由化率을 提高시켜 1983年初 現在의 約 76%에서 1984年末까지 約 85%로 높이고 1988년까지 90% 以上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둘째, 原料 및 輸入用 原資材를 除外한 一般製品의 關稅率을 1988년까지 20%로 均等化 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政府의 輸入政策은 충분한 理由가 있는 것으로서 계속 推進되어 實現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의 이러한 方針이 거의 確固한 이상 모든 産業이 거의 例外없이 政府政策을 주어진 與件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對應하는 企業戰略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客觀的으로 冷靜히 評價해 볼때 潤滑油産業에 對한 保護는 過剩狀態이다. 潤滑油製品輸入에 對한 40%關稅率과 潤滑基油輸入을 總供給의 30%로 制限함과 同時에 關稅率을 30%로 策定한 것은 높은 關稅率과 輸入制限을 同時에 賦課하는 二重保護와 過保護인 것이다.

이와같은 潤滑油産業에 對한 過剩保護가 앞으로 그대로 維持된다고 期待할 수는 없는 것이

다. 原則적으로 누구나 例外없이 國家의 基本政策方向을 尊重하면서 그것을 주어진 與件으로 受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點에서 潤滑油產業에 對한 輸入自由化와 關稅率引下가 不可避하다고 보고 이에 對應하는 方法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輸入에 對한 國家의 基本政策方向에서 벗어나지 않는 輸入調整이 潤滑油產業에서도 不可避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留意해야 할 明白한 調整課題는 市場과 價格의 歪曲을 隨伴하는 變則輸入에 對해서는 別途의 特別한 措置가 取해져야 할 것이다. 日本과 台灣의 潤滑油業界가 우리나라 潤滑油市場을 占有하는데 血眼이 되어 甘言利說로 價格을 덤핑하여 輸出함으로써 우리나라 潤滑油市場의 安定과 秩序를 破壞하는데 對한 우리로서의 對應策은 講究되어야 한다.

덤핑이란 短期 및 目前의 利益에 眩惑되어 歪曲을 誘發시켜 我田引水로 誘導하면서 長期的으로나 決定的인 時期에 選擇의 餘地도 代案도 없이 더 큰 損害를 입히는 하나의 手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手法에 휘말리지 않도록 事전에 賢明한 方策을 講究하여 對備해야 할 것이다.

潤滑油產業에 對한 輸入調整은 國家의 輸入自由化와 關稅率引下 方向에 對應하면서 덤핑價格에 依한 變則輸入을 規制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正常輸入으로 看做될 수 있는 輸入價格은 싱가폴의 公示價格을 基準으로 判斷되어야 할 것이다.

#### 第4節 技術開發 및 品質管理

우리나라의 潤滑基油產業設備는 先進國이 設置한 最新施設로서 基油의 品質은 外國의 基油에 遜색이 없다. 또한 潤滑油製品도 裝置產業의 生産物로서 質이 좋은 基油과 輸入添加劑가 配合된 것이기 때문에 質에 있어서 輸入品에 代替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潤滑基油生産過程에서나 潤滑油配合에서 특별한 技術開發을 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經濟水準에서 技術開發에 投資하여 消費가 우리나라에 制限된 製品을 生産하는 經濟性이 缺加된 投資보다는 先進工業의 技術을 導入하여 活用하는 것이 더 實利的일 것이다. 長期的인 側面에서 制限된 品目이나 用途에 新製品開發을 試圖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技術開發投資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產學協同 또는 國家研究機關과의 協同下에 長期的인 計劃下에 試圖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日本의 全國石油工業協同組合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技術開發을 위한 協力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중히 參考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潤滑油에 對한 品質管理는 대단히 중요한 課題이다. 潤滑基油에 對한 品質管理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특히 심각한 문제는 潤滑油製品에 對한 品質管理이다. 本章 1節에서 指摘하였지만 廢油에서 基準도 없이 再生된 粗雜品은 철저한 品質管理로 強力한 規制를 받아야 한다. 行政當局은 廢油再生品을 強力히 團束할 수 있는 法的 制度的 措置를 하루 속히 講究하여 官民協力下에 強力히 實施해야 할 것으로 본다. 粗雜潤滑油의 氾濫은 貴重한 資本을 浪費·損傷시키는 惡影響을 끼칠 뿐만 아니라 流通 및 社會秩序 問題도 대두시키므로 이에 對한 團束은 時急한 問題이다.

## 第5節 結 言

潤滑油産業은 현재상황을 고비로 發展할 수 있는 希望的인 産業이다. 自然的인 趨勢에 따라 需要가 급속히 伸張될 수 있으므로 현재 대두되어 있는 供給過剩 問題는 멀지않은 期間에 解決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需給調整과 價格調整은 自律的인 市場競爭原理에 따라 合理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正常化의 方向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需給과 價格에 뚜렷한 調整方向이 있다기 보다 市場機能의 效率性 및 正常化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潤滑油産業의 發展方向에 가장 뚜렷한 變數作用을 하는 것은 輸入調整이라 할 수 있다. 輸入調整은 모든 側面을 公正하게 考慮해서 試圖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어려운 중요한 課題이다. 輸入調整은 國家의 基本方向(自由化, 關稅率引下 등), 消費者保護, 國內産業正常化, 市場秩序 確立, 長期的 眼目 등을 考慮하여 合理的이고 健全한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潤滑油輸入도 自由化와 關稅率引下의 調整方向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 第7章 要約 및 結論

### 要 約

1. 潤滑油는 貴重한 器機와 設備의 保全, 推持 및 作動에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資源 및 資本集約型 石油類 製品으로서 대단히 重要視되어야 하는 것이다.
2. 製造業 伸張에 對한 潤滑油消費의 彈性値는 約 1.08이 된다. 따라서 工業發展과 潤滑油消費의 增加는 거의 正比例한다.
3. 우리나라 潤滑油産業을 보면 潤滑油高級基油生産은 雙龍精油가 專擔하고 潤滑油配合業體로는 油公, 湖油, 極東-셀 및 모빌코리아 등 4大會社가 市場의 約 96%를 차지하며 餘他 群小業體가 수십개 亂立하여 있다.
4. 潤滑油産業의 가장 심각한 問題點은 稼動率低下, 높은 價格水準, 基油産業에 對한 二重(過)保護, 덤핑價格에 依한 輸入 等이다.
5. 潤滑油에 對한 需要는 앞으로 年平均 約 10%씩 急伸張 할 것으로 보이고 世界 潤滑油市場의 需給均衡은 1986年頃에 達成되고 1988年 以後에는 供給不足現狀이 發生한다는 展望이다. 따라서 潤滑油의 國際價格이 上昇할 것으로 보인다.
6. 日本 潤滑油業界의 가장 심각한 問題는 稼動率低下인데 台灣과 싱가포르는 稼動率低下問題가 거의없다. 三國은 共히 韓國에 對한 市場占有에 熱을 올리고 있는바 日本과 台灣은 國內 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韓國에 輸出하고 있다.

7. 潤滑油配合業體(블렌더)는 國際競爭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潤滑基油業體는 國際競爭力을 갖고 있지 못하다. 國際價格이 約 30%程度 上昇해야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다.
8. 潤滑油產業의 發展方向은 需給·價格의 自律化, 輸入政策의 改善, 技術向上, 品質管理強化, 廢油再生에 對한 規制強化 및 協助體制의 確立 等이라 할 수 있다.
9. 潤滑油產業에 對한 政策方向은
  - 가. 需給과 價格에 自由競爭原理 適用
  - 나. 潤滑油製品의 輸入 自由化
  - 다. 潤滑油製品의 輸入에 對한 關稅率引下 調整
  - 라. 潤滑基油에 對한 輸入制限(쿼터)의 緩和 또는 撤廢
  - 마. 潤滑基油輸入의 關稅率 引下 調整
  - 바. 덤핑價格에 依한 輸入에 緊急關稅 賦課
  - 사. 品質管理強化 特히 廢油再生에 對한 規制強化
  - 아. 長期的인 輸入自由化
 等이라 할 수 있다.

## 結 論

潤滑油產業에 對한 政策方向에서는 諸經濟與件의 變化趨勢와 政府政策의 基本方向 및 潤滑油產業의 健全한 發展方向 等を 考慮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多樣한 政策代案을 提示하였다. 潤滑基油產業에 對한 諸政策方向中 本 研究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判斷되는 것은 第6章 第3節 다 7案이다. 이 案은 다음과 같다.

### 가. 基本方向

- (1) 輸入制限을 撤廢한다.
- (2) 現在의關稅率을 維持 適用한다.
- (3) 덤핑價格에 對한 輸入에 緊急關稅를 追加로 賦課한다. 緊急關稅率은 <싱가폴 公示價格 - 덤핑價格>과 같게 한다.

### 나. 期待效果

- (1) 國內基油施設 稼動率이 90%를 上回하여 基油國內供給價格을 約 15%引下하면 國內價格이 輸入價格보다 낮아진다.
- (2) 國內基油業界(雙龍)는 國內需要의 대부분을 專擔할 수 있다.
- (3) 國內潤滑油配合業界는 輸入을 하지 않는 대신 國內供給價格이 均一하게 15%引下 되므로 基油投入費를 節減하여 利潤을 높일 수 있다.
- (4) 基油業界의 稼動率低下 問題는 解決된다.
- (5) 基油業界의 費用節減, 經營合理化, 他業界와의 協助體制確立 등을 誘導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6) 表面上 二重保護(關稅와 輸入制限)를 막고 輸入自由化 政策에 付合된다.

- (7) 潤滑基油産業의 正常化로 基油輸出의 基盤構築이 可能하다.
- (8) 外國의 덤핑價格에 依한 不純한 市場占有를 막아 潤滑油産業과 市場의 健全化를 圖謀한다.

다. 關聯業界의 豫想反應

- (1) 國內 潤滑油配合業體는 輸入을 하지 않는 대신 國內供給에서 15%의 價格引下 惠澤을 받으므로 利潤을 높일 수 있어 納得하게 될 것이다.
- (2) 國產 潤滑油價格이 輸入潤滑油價格보다 더 크게 낮아질 수 있어 有利해 진다.
- (3) 國內 潤滑基油業界는 國內供給專擔으로 企業의 正常化를 達成하여 앞으로의 需要增大에 따른 發展의 基盤을 構築할 수가 있어 바람직한 方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 國民經濟의 效果

- (1) 輸入政策의 合理化를 期할 수 있다.
- (2) 産業의 合理化를 圖謀할 수 있다.
- (3) 潤滑油 市場의 安定化를 定着시킬 수 있다.
- (4) 消費者에게 利益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5) 外國의 操作과 不純浸透를 防止할 수 있다.
- (6) 稼動率上昇으로 資源의 浪費를 防止할 수 있다.
- (7) 政府의 直接的인 介入을 縮少시킬 수 있다.
- (8) 競爭의 原理를 圖謀할 수 있다.

한편 潤滑油에 對한 需要가 급속히 伸張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에 潤滑油産業은 現實의 問題點을 賢明하게 克服하면 希望的인 産業으로서 樂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重化學工業體가 潤滑油業界보다 더 심각한 問題에 直面했었고 아직도 問題를 克服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善意의 自由競爭市場原理를 尊重하고 이에 따라 最善을 다하며 業界 스스로 協力體制를 確立하여 相扶相助로 調和를 이루어 나가면 이제부터라도 正常化를 찾고 더욱 發展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는 어디까지나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關聯業界의 效率的인 發展을 위해 公正하고 客觀的인 結論을 導出하는데 精誠을 다한 것이다. 關聯業界의 깊은 理解와 諒解를 바랍과 동시에 本 研究를 契機로 우리나라 潤滑油業界가 더욱더 發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아낀 에너지  
선진조국 앞당긴다.